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 오리농가에 AI 방역물품 긴급 지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는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전국 오리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AI 방역물품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리자조금 사업예산으로 진행되는 AI 방역사업은 오리협회 각 지회별로 품목을 추천 받았고 오리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물품은 규정에 따라 물품 구매 대행업체를 선정 하였고, 사육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오리농가에 개별 배송된다. 물품 수령 대상은 자조금을 납부한 모든 오리 농가에게 지급된다. 일회용품은 매년 소비하는 만큼 오리농가에서는 계속 필요한 방역 물품이다.

오리농가는 기후 변화로 겨울철 폭설, 장마철 수해에 매년 큰 피해가 계속되고 협회는 자조금 사업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긴급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재해 피해 지원과 AI 방역물품 지원사업까지 총 2억2,000만원 수준이다.





김만섭 회장은 “겨울철 AI 발생, 연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오리농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세계적으로 HPAI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각 농가에서는 사람 및 차량 출입통제, 장화갈아신기 등 농장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